



MONTHLY **KOFA**

코파의

정음

코파의 힘 지령 100호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한국신발산업의 100년 대계를 꿈꾸자!

Tel. 021-3002 9090,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Panungangan Barat, Kec. Cibodas, Karawaci Tangerang 15139



Vol. **100**
2023/01

1000

2023



먼저 코파의 힘 창간 100호를 맞이하게 되어 신발인인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재인니 한국 신발협회의 큰 자긍심과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신발기업이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에 정착한지 40여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재인니 한국 신발기업에 있었습니다. 대형 신발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러쉬 이후 IMF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기업, 또다시 그술한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난 기업등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 한국

코파의 힘 지령 100호를 시작으로 100년 대계를 꿈꾸자!

신발기업은 이땅 인도네시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목소리와 그 필요성에 의해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KOFA)가 14년전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발족이후 우리 신발기업들은 이방땅 인도네시아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KOFA를 중심으로 뭉쳐야한다는 당위성과 자긍심을 갖게되었고 그 일환으로 코파의 힘을 8년전 2014년 9월에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코파의힘은 우리 재인도네시아 한국 신발협회의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로 회원사 상호간 결속력과 소속감, 하나된 한국 신발기업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신문배송을

회원사에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매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친구같은 매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선두에 선 코파의 힘이 벌써 1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파의 힘은 코파 회원사 소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이슈등 다양한 소식으로 회원사에게 다가갔으며 선진적인 모범협회로 타 협회의 부러움을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사람은 바뀌어도 기업의 정신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격동의 세월속에 곳곳하게 성장해온 우리 신발기업의 전통과 정통성을 승계하기 위해 과거, 그리고 지금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매

체가 바로 코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코파의 힘은 우리 인도네시아 신발인들의 정통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협회내의 단일사업장간 상호 공감대 형성에 주력 할 것이며 나아가 다음세대를 잇는 우리 신발인들의 좋은 벗이될 것이고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파의 힘 100호를 시작으로 더 나은 기업환경과 더욱 더 탄탄하고 결속력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그 첨병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코파의 힘 100호 발행에 더 없이 큰 자부심과 감사함을 모든 협회 회원사님과 함께하게 됨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KOFA 회장 이종윤

‘코파의 힘’ 창간 100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국신발협회의(KOFA)에서 발행하는 ‘코파의 힘’ 창간 100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코파의 힘’ 은 지난 2014년 발간을 시작하여 인도네시아 신발 관련 기업인을 비롯한 우리 기업인들에게 하나의 소통 수단으로, 그리고 신발 사

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원천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00호를 맞이한 ‘코파의 힘’ 에는 그 동안 수많은 신발 기업인들의 모습과 신발협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발협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신발협회를 대표하는 언론으로 신발협회 소식, 세계 신발 산업 이슈, 최신 인도네시아 이슈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에 맞춰 또 한 번의 도

약을 앞두고 있는 ‘코파의 힘’ 이 앞으로도 신발협회 회원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매체로 잘 수행해주시기를 바라며 더욱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월간지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새해에는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코파의 힘’ 창간 100호 출간을 축하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Go Global KOCHAM Together! KOCHAM 회장 이강현

강철코파 !

재인니 한국 신발협회의 기관지 코파의 힘 100호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9년의 세월동안 코파의 힘은 재인니 신발인들의 정보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으며 신발인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는데 엄청난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인니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알찬 기사를 편집하여 보급하므로 인하여 한인사회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긴 기간의 팬더믹기간에도 대한민국과 인니정부의 지침서를 리마인더 하여 고생하시는 모든분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발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토대로 재인니 신발업 종사자들



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앞날을 밝히는 햇빛의 역할지로서 더욱 더 발전된 코파의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편집에서 발간, 배부에 이르는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재인니 한국 신발협회의 회장님과 홍보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땅그랑반튼 한인회장 채만용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코파의 힘 지령 100호는 KOFA의 정통성과 자긍심일것



먼저 코파의 힘 지령 100호 발간을 신발인의 한 사람으로써 축하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꾸준히 발행해 오는 코파의 힘은 제호의 의미대로 우리 재인도네시아 한인 신발기업인의 힘이었습니다. 한편 올 한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고,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어렵사리 극복하고 이제 기지개를 펴나 싶더니 최근 닥쳐온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해 우리 신발산업이 또 한번 더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신발기업인들은 하나로 뭉치고 서로 의지하고 기대는 상생의 힘과 지혜를 통해 극복해 왔듯 현 상황 역시 잘 견디고 버텨내리라 생각합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곧 다가올 아침을 위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시다. 뭉치고 하나되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지혜와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하나된 코파를 위해 코파의 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코파의 힘 지령 100호는 약 8여년의 시간들을 빠짐없이 발행해 왔고 신발협회의 정통성과 긍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코파의 힘 100호 발행에 편집국 요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0호를 시작으로 우리 신발기업인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OFA 명예회장 송창근

코파의 힘!미래를 향해 또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코파의 힘 지령 100호를 맞으신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OFA는 봉제협회 KOGA와 더불어 노동 집약적 산업이 주축인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더불어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성장의 과정속에 때로는 좌절되고 어려운 고비가 많았으나 그럴 때 마다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함께 하는 동반자로 협력하고 의지하며 난관을 함께 이겨낼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을것입니다. 특히 매년 개정되는 인니 정부의 임금정책으로 인해 누구보다 직접적 타격을 입게되는 신발과 봉제 두 업종은 Col-laboration과 Corporation을 통해 상생을 위한모색을 끊임 없이 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동심동덕’ (同心同德) KOFA와 KOGA는 같은 목표를 위해 일치단결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또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발자국마다 <코파의 힘>이 살아있는 증거이자 역사로 기록되어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파의 힘 >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 안창섭

코파의 힘 지령 100호를 축하합니다.



재인니 신발 협의회(KOFA)에서 발행하는 ‘코파의 힘’이 2023년 1월로 창간 1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내 단일 직능 단체에서 발행하는 매체로써 최

초의 지령 100호의 발행이기에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약 40년 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신발 기업은 IMF등 험난한 위기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의지와 변화에 따른 발 빠른 대응으로 성장해 왔고 세계 속의 한국 신발산업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계기 또한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기업에 있다는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인니 한국 신발기업은 인도네시아내 약 40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관련 인구를 포함하면 약 100만의 고용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민간외교의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존재감이 에너지가 되어 오늘의 ‘코파의 힘’을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KOFA인들에게 다가와 알찬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해 온 ‘코파의 힘’이 앞으로도 우리들의 곁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100호가 있기까지 열정으로 지속해 온 많은 손길들에게 감사드리며 코파인들의 신뢰와 성원 속에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박재한

편집자 주

8년전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KOFA)에서 회원사의 권익과 이슈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매체가 필요성으로 인해 코파의 힘이 창간 되었다. 회원사 소개와 인도네시아 주요이슈, 신발산업의 흐름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해 왔고 특히 신문의 배송을 각 회원사와 관계기관, 기업에 직접 우편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리고 SNS를 통한 PDF 파일을 매월 약 30개국 9,000명 정도에 1:1 온라인 배송을 해 왔었다. 벌써 100번째 신문이 발행되어 남다른 감동으로 지난 시간들을 잠시 회고해보기도 했다. 많은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곳곳하게 헤쳐나가는 신발기업을 보면서 한국 신발산업의 미래가 낙관적이라는 것을 직시 할 수 있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코파의 힘 100호를 시작으로 하나된 코파를 만드는 선봉에서 서서 더 알차고 바른 월간지를 발행하고자한다. 코파의 힘 100호까지의 발행에 동참해주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릿속어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코파의 힘 편집국장 강재홍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이임사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저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의 소임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2년 반 동안 아세안의 선두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대사로서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자 보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한 가운데 인니에 부임하여, 어려운 시기를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인니 한인 동포사회의 00과 위기대응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사관, 한인회, 동포 언론, 우리 기업과 경제단체가 다 함께 대동단결하고 상부상조하면서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서로 돕고 화합하는 정신은 재인니 동포사회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동포사회의 저력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동포사회가 유지된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보람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인니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50년의 긴 역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의 한-인니 협력은 양국 관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지난 7월 아세안 정상 중에서 최초로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최초 방문도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전기차가 공식 의전 차량으로 선정되어 양국 협력의 견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협력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양국 의회 지도자의 상



호방문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총 200억불에 달하는 우리 주요 기업의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IK-CEPA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양국간 요소수,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협력과 인니 신수도 건설 및 인프라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KF-21/IF-X 분담금 납부 등 국방·방산 분야까지 양자 협력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니 문화교류와 인적 교류도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K-pop과 K-drama를 필두로 한류는 인니 전역으로 뜨겁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인니 국민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큰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때마다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외교적 성과가 우리 동포사회의 든든한 지지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한-인니 양국 관계가 새로운 50년의 이정표를 세우고, 더 큰 도약을 해낼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최고의 동포사회인 인니 동포사회와 함께 동고동락 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보내주셨던 든든한 지지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모든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 박태성

인니 정부, 2023년 지출 재원으로 128억 달러 이상 절감

정부는 2023년에 예상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앞두고 재정 통합의 길을 유지하면서 국고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지출에 대해 올해 미사용 예산에서 최소 128억3천만 달러(200조 루피아)를 절감할 계획이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몰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부분적으로 올해 내내 높은 원자재 가격의 결과로 세금과 비과세 소득에서 일시적인 황재 이익으로 인해 절감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자금은 올해 미사용 예산(SILPA)에 해당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의 부담 분담 계획을 통해 정부가 조달한 225조 루피아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2020년 국가재정정책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무화된 대로 올해 종료될 예정인 중앙은행 부담분담제 없이 내년을 이어가야 한다.

한편, 새로 통과된 금융 부문 옴니버스 법은 미래의 위기 시에 부담 분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분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2023년 인니 정부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특히 신흥 경제국의 차입 비용을 더 높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원자재 붐은 가라앉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2023년에는 올해 실현된 수익에 비해 더 낮은 국가 세입이 예상된다.



▲ 인도네시아 스리 몰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84%를 이루기 위해 내년에 712조 9000억 루피아 이상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이미 올해 수정 목표치인 GDP의 4.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스리 몰라니 장관은 정부의 재정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높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 더 안전하다고 보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정부의 자금 조달 소스를 더 다양하게 전환할 계획이다.

다른 대책으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쉽게 겁을 먹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국채를 흡수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포함된다.

노련한 경제학자이자 전 재무장관인 짜뽀 바스리(Chatib Basri)는 21일 2023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것이 주로 선진국과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영향을 미쳐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짜뽀는 강력한 재정 규율을

통해 가능해진 정부 지출이 인도네시아가 다가오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극복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재정 규율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통과된 부담 분담 제도의 사용에 관한 조항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김해 · 대구-인도네시아 직항 노선 열릴까... 한국공항공사, 개설 추진

한국공항공사는 간디 술리스티안토 소에헤르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예방해 두 나라의 신규 항공노선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10 New Bali 정책' (인도네시아 동~서에 이르는 10개 지역에 대한 활성화 추진 계획)이 세계와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공사의 글로벌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2025년 부산시 개최가 결정된 '에어포트 이노베이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김해 · 대구 등 동남권 공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직항노선 유치가 필요



▲ 윤형중(왼쪽)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간디 술리스티안토(오른쪽)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만나 두 나라 신규 항공노선 유치를 위해 뜻을 모았다. (사진=한국공항공사)

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술리스티안토 대사는 "인도네시아는 한류에 관심이 큰 나라로 내년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국민 교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한-인니 항공노선을 확대, 한국의 지방도시와 인도네시아 노선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화답했다. 이밖에 윤 사장은 해외공항 투자개발과 건설사업 등 공사에서 추진 중인 해외사업과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며 두 나라가 협력할 분야와 기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카르타에 코리아타운 생긴다

북부 판타이 인다 카폭 해변에 한국문화 체험장으로 조성 안토니 살림 회장 “콘서트홀부터 마련...한국문화에 관심 많아”

자카르타 북부 판타이 인다 카폭에는 차이나타운이 있다. 중국인 집중 거주지가 아니다. 중국 문화와 음식이 집결된 관광지다. 고쟁 음악, 중국 사자춤, 태극권 시범 등을 관람하며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화려한 경관은 2000년 11월 살림그룹과 이공스다유그룹에서 조성했다. ‘뉴타운십’ 사업의 하나로, 인근에 이슬람 금융센터도 건설 중이다. 다음 프로젝트는 코리아타운이다. 판타이 인다 카폭 해변을 한국문화 체험장으로 꾸민다. 여력은 충분하다. 살림그룹은 식품(인도푸드), 유통(인도마켓), 자동차(인도모빌)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계열사를 소유한 인도네시아 대표 기업이다. 주력 사업은 부동산과 레저 개발. 현지 최대 쇼핑몰인 그랜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호텔, 리조트, 골프 코스 등을 다수 보유한다.

차이나타운 건설 배경에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존재한 화교가 있다. 현지에서는 ‘티옹화’ 또는 ‘치나’라고 부른다.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나 경제권의 약 80%를 장악 중이다. 안토니 살림 살림그룹 회장도 화교다. 부친 수도노 살림(1916~2012)은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나 1952년 자카르타에 정착했다. 한국을 향한 관심은 차이나타운보다 훨씬 상업적이다. 부상하는 K-콘텐츠 인기에 편승해 젊은 층을 공략하고자 한다. 살림 회장은 지난 5일 ‘K-브로드캐스팅 쇼케이스 인 인도네시아’에서 속내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BS·MBC·EBS·SLL·CJENM·아이코닉스 등 국내 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K-콘텐츠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단연 K-팝. 그는 코리아타운 건립 방안을 공개하며 “콘서트홀부터 만들 생각이다. 라이브 공연은 물론 야외 활동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 내린 결론”이라며 “인도네시아인 대부분이 콘텐츠, 음식, 뷰티 등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살림그룹은 이미 K-콘텐츠를 통해 쓸쓸한 재미를 봤다. 2011년까지 운영하다 열광 마코타 테크놀로지에 소유권을 넘긴 지상파 방송사 인도시야가 대표적인 예다. 드라마 ‘가을동화(2000)’, ‘대장금(2003~2004)’, ‘아내의 유혹(2008~2009)’, ‘꽃보다 남자(2009)’, ‘시크릿 가든(2010~2011)’ 등을 송출해 많은 시청자를 불러 모았다. 최근에는 K-팝 공연을 주로 후원한다. 지난 3~4일 자카르타 커뮤니티파크에서 열린 ‘헤드 인 더 클라우드’에는 GOT7 잭슨, 여자아이들, 비비, 청하 등이 출연했다.

살림그룹은 K-콘텐츠 제작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다. 살림 회장은 “콘텐츠나 프로그램보다 제작사에 투자하는 편을 선호한다”며 “최근에도 인도네시아 인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비디오의 지분을 사들였다”고 말했다. 인도푸드 이사이자 아들인 액스톤 살림도 지난 3일 ‘코리아 360’ 개관식에 참석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강 건너 등불

지난 10월, 미국이 국가전략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는 2010년, 15년, 17년에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는 21년, 22년에 잇달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전략의 수정 변경이 현저하게 필요했던 모양이다. 세상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국가전략보고서는 Goldwater - Nichols Act(법)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48쪽(쪽이 된 이 보고서는 미국이 당면한 사정을 밝히고 바이트 행정부가 이 세계의 리더로서 해야 할 일과 또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 미국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은 딱 한 바락이다. 미국은 초강대국 간의 탈냉전 경쟁과 기후 변화에서 세계 보건 문제에 이르는 초국가적 도전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강한 미국이 되기 위한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도 안보가 우선이다. 불안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 그러려면 우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처방한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강력해져서 나쁜 대국들이 황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방들과 연대해야 한다. 내가 갖는 의문은 하룻강아지인지, 천둥벼락송이 같은 푸탄을 귀싸대기 하나 후려치지 못하고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면 겁을 주는 이 미치광이를 보고만 있어야 할 일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는 사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시민과 군인들이 죽고 고통을 받았는가? 푸탄은 천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일대일로를 열고 일장춘몽 같은 중국몽을 꾸는 욕심꾸러기를 또 어찌해야 할까? 인구가 많아

큰 시장이라서 멀리 할 수도 없는 이웃이지만 북한과 양다리를 걸치니 우리 편은 아니다. 남 걱정 말고 우리 집안이라도 잘 살게 해 달라는 미국 사람들의 요청 또한 강하다. 이런 사정인데 미국이 세상일을 다 걱정하고 책임지기에는 버거우리라는 생각이다. 연방준비제도는 며칠 전 빅 스텝인 0.5%의 금리를 올렸다. 소비자물가지수가 7.1% 상승하여 예상보다는 약간 낮아서 안심했기에 그 정도 올린 것이라는 것, 소비자 물가가 쑥 내려갈 때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라 하니 23년에도 계속 올릴 한미 금리차가 커져 우리도 또 이자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계속 오를 금리에 서민들이 어찌 살까 걱정이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상성은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과이불개(過而不改)’. 영국의 폴리스사전은 ‘퍼머크라이시스’(permanent+crisis, 영구적 위기)로 정했다.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과 불안이란 의미이고 미국의 미리엄웹스터사전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제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선동하는 행위’라는 뜻의 ‘가스라이팅’을 골랐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는 커녕 “기분 나빴다면 유감”이라 표현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의 좋은 보기다. 우리가 지겹도록 보고 있지 않은가? 영국의 옥스퍼드사전은 ‘고블린(Goblin) 모드’라고 발표했는데 덩치가 작고 사악한 도깨비의 고블린 모드는 불안과 피로에 지친 일상에 나타내고 방종하게 사는 ‘포기하면 편해’ 식의 무기력한 태도를 말한다. 올해의 단어가 아니라 한 동안 이 시대를 대표할 단어는 단연코 ‘내로남불’ 일 것이다. 언제쯤이면 이런 일이 부끄러웠던 과거가 될까?

국제 경쟁에서 우리는 얼마나 경




조기조

쟁력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미중소일의 틈바구니에서 북한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미국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말이다. 세금 받아 나눠 쓰는 예산안도 제때에 합의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경쟁력이 있겠나 생각하니 역장이 무너진다. 어제도 오늘도 네 탓만 하고 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에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군중들, 국론이 어찌 이리 분열되어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아야 하나?

‘강 건너 등불’은 가수 정훈희가 부른 노래다. “그렇게도 다정했던 그때 그 사람, 언제라도 눈감으면 보이는 얼굴, 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운다는 강 건너 등불은 가족과 연인을 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절규하며 부르는 노래 같다. 우리는 이런 이별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안정되며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제를 두고도 강 건너 등불 보듯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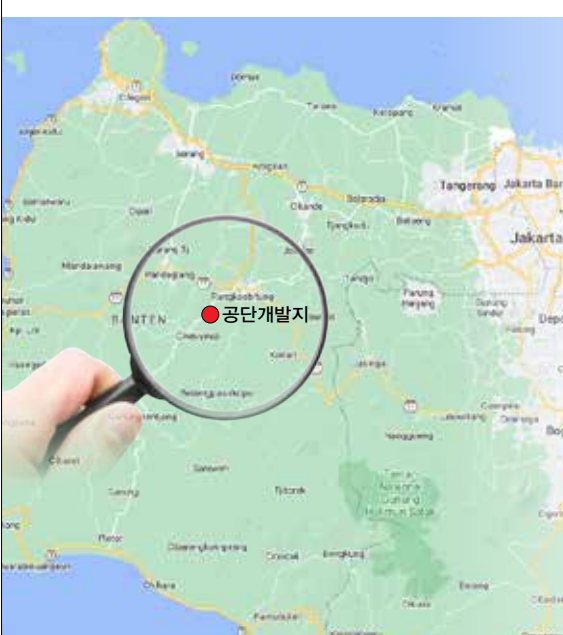
조기조(曹基祚 Ky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club@munscb.com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lub@munscb.com, munscb33@gmail.com
www.munscb.com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는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조코위 대통령, 2023년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비해야



▲ 2022년 12월 21일 자카르타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린 2023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에 참석한 조코위 대통령 (사진=내각 비서실 홍보국/Oji)

2023년에는 정부와 기업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의 결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1일 내년 경제 전망을 중심으로 개최된 포럼에서 국가가 “쉽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고”,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현재의 세계 경제 혼란을 다루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높은 금리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스리 몰라니 재무장관은 같은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기업의 성

장에 중요한 측면인 수급 측면의 지속적인 문제에 몇 가지 요인이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공급 측면에서 러시아와 서방 동맹국들 간의 경제 제재 여파가 주요 원자재의 세계적 공급을 방해하여 석유, 가스, 식품 가격이 역사적인 수준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노동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선진국에서 “노동 긴축”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글로벌 전염병 위협이 사라지기 시작함에 따라 조금 회복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노동긴축은 막대한 일자리 기회가 열리지만 그 공백을 메울 인재 풀이 부족해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스리 장관은 러시아, 유럽,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해결을 알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극도’로 긴축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스리 장관은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경제 둔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2023년 인도네시아의 과제는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경기 둔화와 증가하는 코로나19 사례와 함께 경제 개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국 등 글로벌 환경을 주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올해 높은 기준금리와 인도네시아 주요 시장의 경제적 침체에도 내년 수출 성장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상은 정부가 인도와 중동과 같은 비전통적인 시장을 대체 수출처로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에 적어도 6% 이상의 투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OJK) 마헨드라 시레가 원장은 중소기업(MSME)과 관광 등 여전히 대유행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부문의 구조조정 계획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섬유와 신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이들 산업이 세계 시장의 수요 부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헨드라 원장은 경제의 활력소인 금융 부문도 국가 우선순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하리아디 수감다니 회장은 21일 별도 행사에서 섬유와 가구 등 수출 중심 업종의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아 2023년에도 정리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민연금(BPJS Ketenagakerjaan)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의 92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내년 투자가 자본집약적 사업에 집중되는 반면 노동집약적 사업은 자본 투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리아디 회장은 기자들에게 “

투자는 계속 성장할 것이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모두에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의 제조를 위한 원자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여러 부문의 성장을 방해하는 수입 관세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불평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시절의 전 재무장관 짜뎁 바스리(Chatib Basri)는 내년의 또 다른 도전에 대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몰고 가는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로 실업률이 현재 3.7%에서 1년 안에 최고 1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이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짜뎁은 이러한 정책들이 일치할 경우 미국은 2023년 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재정당국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 0812 9012 2019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pusat_BGT@yahoo.com

2023 트렌드 코리아는? 트렌드 인도네시아는?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연말이 되면 일기예보를 보듯 다음해가 궁금해지고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양한 연구소와 기관들이 내년을 예측하는 트렌드 연구보고서를 쏟아내지만, 그중에서도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이맘때면 서점가를 채우는 대표 '장르'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은 먼저 2022년 대한민국 트렌드 분석과 트렌드 상품을 통해 현재를 살펴보고,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슈머' 등 흥미로운 키워드 10가지를 제시해 2023년 소비 트렌드를 예측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와 더불어 연말이면 수십 권씩 쏟아지는 내년 전망과 트렌드 예측에 관한 책들은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진 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측 불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며, 기업은 물론 일반 대중도 '미래 트렌드'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반영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트렌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급격하게 동조화 되는 세계 속에서 큰 흐름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RABBIT JUMP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십이간지의 동물과 영문 두운 10 글자를 이용해 표현하는 내년 트렌드는 '래빗 점프'이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뛰는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癸卯)의 해다. 걸지 않고 강중강중 뛰는 토끼는 속담이나 설화에서는 피가 많고 영리한 지략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 초롱초롱한 눈과 큰 귀로 잘 보고 잘 듣는다. 교활한 토끼는 숨을 굴을 세 개 파놓는다. 플랜B, 플랜C를 가지고 움직인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몰아 담지 않고 리스크 헷징을 하는 것이다. 2022년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였고,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는 기로에 섰다는 의미로 'Tiger or Cat,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 될 것인가?'였다.

2023 10대 트렌드 키워드

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평균 실종

평균, 기준,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정치, 사회 분야로 확산되고 갈등과 분열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소비 역시 극과 극을 넘나들고 시장은 '승자독식'으로 굳혀지고 있다.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 평균을 뛰어넘는 당신만의 대체불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

Arrival of a New Office Culture: 'Office Big Bang' 오피스 빅뱅

팬데믹 이후 일터로의 복귀를 거부하는 '대사직',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출퇴근과 워라밸, 재택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뒤섞이는 가운데 과거의 직장문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송두리째 달라지는 일터에서, 조직과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Born Picky, Cherry-sumers 체리슈머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피커'라고 한다면, '체리슈머'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

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를 일컫는다. 무지출과 조각, 반반, 공동구매 전략을 구사하는 이들은 현대판 보릿고개를 지혜롭게 넘고자 하는 진일보한 합리적 소비자들이다.

Buddies with a Purpose: 'Index Relationships' 인덱스 관계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로빈 던바가 말한 인간관계의 적정한 수 150명은 이 시대에도 맞는 걸까? SNS를 통한 목적지향적 만남이 대세가 된 오늘날, 소통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관계는 여러 인덱스(색인)로 분류되고 정리된다. 이제 나의 친구는 어디까지인가?

Irresistible! The 'New Demand Strategy' 뉴디맨드 전략

아이폰을 내놓은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소비자는 아예 생각지도 못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줄을 서고 지갑을 연다.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 지갑껏 써 왔지만 더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 결제 방식이 유연한 상품 등, 대체로운 뉴디맨드 전략을 만나보자.

Thorough Enjoyment: 'Digging Momentum' 디깅모멘텀

파고, 파고, 또 파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 행복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들, 디깅러의 세상이 오고 있다. 자신의 열정과 돈,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들은 과거 오타쿠와 달리 현실도피적이지 않으며 덕후와 팬슈머보다 더 진일보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다같이, Let's dig in!

Jumbly Alpha Generation 알파 세대가 온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진짜 신세대, 알파세대가 떠오르고 있다.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엄마'가 아닌 '알렉사'였다는 이들은 단순히 Z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시작이다. 100퍼센트 디지털 원주민이자 벌써부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알파세대, 그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다.

Unveiling Proactive Technology 선제적 대응기술

지금 기분에 맞는 노래 뭐가 있을까? 실내가 좀 어두운데 밝으면 좋겠어. 냉장고에 남은 우유가 있단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순간에,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선제적 대응기술'이다. 삶의 각종 편의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Magic of Real Spaces 공간력

멋지다고 소문이 난 공간은 어디에 있는 늘 사람들로 붐빈다. 실제공간은 단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터전이다. 아무리 정교한 가상공간이라도 실재를 이길 수는 없다. 소매의 종말이 언급되는 시기지만,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추고 '비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은 리테일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Peter Pan and the Neverland Syndrome 네버랜드 신드롬

요즘 어른 되기를 한껏 늦추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 이른바 '네버랜드'의 피터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젊음을 미화하고 우상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어른을 만나기 힘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청춘의 열정과 어른의 지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평균 실종'과 '오피스 빅뱅'의 2023. 관계, 일터, 나이, 공간.... 모든 것이 재정의된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천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외식비를 아끼기 위해 대형마트의 밀키트 판매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한 끼에 몇 십만 원을 호가하는 한우 오마카세와 고급 호텔의 망고빙수 열풍은 나날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각기 다른 소비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원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차장이 되고, 차장이 부장 되고, 임원이라는 별을 따는 승진 체계는 이제 과거의 유물로 전략하기 일보 직전이다. 아예 승진을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그냥 일만 하고 '책임'은 맡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여차피 오래 다닐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전교 1등, 엄청난. 요즘 아이들인 알파세대가 가장 부러워하지 '않는' 부류다. 운동이면 운동, 노래면 노래, 게임이면 게임, 자기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셀럽'이라고 여기며 누구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이들의 최애 놀이터는 무인문구점과 다이소 그리고 셀프 사진관.

"어쩔, 너는 그대로나~!" 동창회에서 가장 인기 높은 말이다. 청춘을 미화하고 젊음을 동경하며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사회에서, '어른스럽지 못하다' 혹은 '나잇값을 못한다'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 어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친구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처럼, 자주 소통하는 SNS 친구가 1년에 한번 만날까말까 하는 동창이나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현실이다. 목적지향성 관계 맺기가 일상이 된 오늘날,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어디까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린다. 평균이 사라진 시대,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사고, 대다수 소비자들이 찾는 무난한 상품으로는 이제 어디에도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은 사람들은 점점 지갑을 여는 데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시장은 양극화, N극화, 파편화되고 있다. 이제 어디에도 중간은 없다.

트렌드 인도네시아 2023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와 주택 같은 소형 주거공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1인 가구 또는 핵가족화 영향으로 보인다. 고젝과 그랩, 토코피디아와 블리블리닷컴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와 상품의 온라인 주문과 배송 확산은 비대면 확산 현상이다. 발리에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비자

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오피스 빅뱅 즉 재택 근무 확대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이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유권자 수가 많고 행동력이 큰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대선 후보와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쇼핑몰은 통로까지 빠르게 상품을 진열하던 상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후, 레스토랑과 카페, 교회와 은행, 관공서 등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교류하고 업무를 보는 장소가 되었다. 전기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일하는 공간도 되고(오피스 빅뱅) 자는 공간(차박)도 될 것이다.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음식은 배달시키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기고 청소는 청소대행업체 앱을 통해 파트타임 청소도우미를 부른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OTT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텔레비전과 종이신문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미디어는 광고 매출이 급감했다.

인도네시아가 실리외교와 중립외교를 외치며 외교적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것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성장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세계화가 끝나고 신냉전 시대 조짐이 보이는 환경에서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은 내년도 한국에 대한 예측이지만 '트렌드 인도네시아 2023'를 예측하는데도 참고할 만하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눈에 보는 2023 트렌드 키워드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책과 리포트에서 공통 키워드를 쏙쏙 뽑아 정리했다.

모 아니면 도의 시대

2023년에는 '평균'이라는 말이 무의미해진다. 이를 김난도 교수와 <트렌드 코리아 2023> 저자들은 '평균 실종'이라는 표현을 썼다. 쉽게 설명하자면, 앱스토어에서 1등 하는 앱은 2등, 3등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압도적 1등이다. 1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2, 3등은 명목뿐인 등수라는 것. 어정쩡하고 애매한 걸로 중간을 공략한다는 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 아니면 도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골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오프라인 경험의 시대

우리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2년엔 오프라인 경험에 대한 욕구가 급증했다. 특히 한정된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가 대세이자 트렌드가 됐다. 2023년에도 이 트렌드는 좀 더 심화된 채 이어진다. 단순히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간 자체에 스토리를 담고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콘셉트에 열과 성을 다하는 브랜드가 점점 늘어날 것.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부터 MZ를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까지, 공간을 힘으로 채우고 경험하게 하는 트렌드는 2023년도 쭉 이어질 거다.

티끌 모아 태산의 시대

일찍이 박명수는 '티끌 모아 티끌'이라 했지만, 내년엔 좀 달라진다.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

들 기세로 가성비 있고 현명하게 소비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의 예측. '체리슈머'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체리피커가 케이크 위의 체리만 쏙 빼먹듯 혜택만 누리는 부정적인 소비자였다면, 체리슈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총동원해 알뜰하게 소비한다는 의미다. 비슷한 맥락으로 '소비 디톡스'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만 결제한다든지, 필요 없는 쿠폰을 거래해 수익을 올리는 모바일 쿠폰 거래 플랫폼 이용을 한다든지, 아 파트 한 동에서 배달 요금을 아끼기 위해 음식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배달 공구 등이 대표적인 체리슈머다. 2023년에는 티끌이 더 이상 티끌이 아니다.

취향 디깅의 시대

올로와 플렉스를 지나 디깅의 시대가 도래했다. 나의 취향을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2023년의 트렌드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더라도 와인, 샴페인, 위스키처럼 역사와 스토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운동, 요리 등 취미 분야를 더 깊게 배우고 즐기면서 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 다양한 분야를 알게 경험하기보다, 특정 분야를 파고들어 전문가 수준으로 '디깅'해 자기만의 행복과 성장을 얻는 시대가 온다.

활발한 레트로의 시대

2023년에도 레트로에는 여전히 크리에이티브 비주얼 영역에서 주요한 키가 된다. 유튜브, 틱톡 등 영상 분야의 Z세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활발한 레트로'는 2023년에도 비주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단, 단순한 '복각'을 넘어서 빈티지한 스타일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복고풍 스케이트보드, 원색 패션, 붐박스,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등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아우르는 스타일이 영향력을 가질 전망이다.

“제대로 된 재외동포정책이란게 한번도 없었다” 재외동포 전문가들

국내외 다문화를 포괄하는 적절한 표현이 ‘한인’ 제126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정책의 비전 개발’ 토론회

지난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26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정책의 비전 개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정책은 정책 수요자에 대해 정부가 어떤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한 시점에 재외동포 정책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6차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룡제) ‘재외동포정책의 비전 개발’ 토론회는 이형모 재외동포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 김현동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의 축사,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토론회에서 재외동포 전문가들은 주제토론에 앞서 “그간 딱 떨어지는 제대로 된 재외동포정책이란게 한번도 없었다” 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토론회자로 참석한 광승지 전 연변과기대 교수는 “재외동포 문제의 복합성과 다양성,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정책이 수립돼 왔다” 며 “그러다보니 재외동포 정책이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큰 틀에서는 방치됐다고 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광 교수는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식화한 것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며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새로운 대전략을 제대로 수립해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 고 덧붙였다.

임채완 (사)재외동포연구원장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 재외동포 정책 부재의 가장 큰 원인” 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이 1999년 만들어졌으나, 법무부는 동포들의 국내 출입국과 법적지위를, 외교부는 동포들의 해외거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등 컨트롤타워 없이 지난 20여년이 흘렀다고 임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모법(母法)이자 동포들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법적근거로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오랜기간 제기돼오다 지난 2020년 11월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 제7조에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5년

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수십 종류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의 복잡한 비자문제, 대선 때마다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행사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재외동포청이 설치돼 재외동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나, 재외동포청이 먼저 설치가 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비전을 설정할지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가 기획됐다.

재외동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이날 ‘한국인의 재외동포 인식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임채완 원장은 “전문가가 머릿속 생각으로 만드는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정책이라야 지속가능하고 가장 좋은 정책” 이라며 “정부가 현재까지 재외동포정책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선 고려할 사항은 세계한민족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부터 시작, 파악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임 원장은 재외동포재단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8차례에 걸쳐 조사·발표한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를 기초자료로 분석, 소개했다.

해당 조사는 내국민 700~1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우리 국민이 재외동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임 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을 구성하는 요소로 민족의식이나 역사·문화 의식 수준보다 ‘한국어 사용 수준’ 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외동포로 인식하는 조건에 있어서 ‘국적’ 이 ‘언어’ 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재외동포 2.3세’, ‘어릴 때 외국으로 입양돼 한국과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한인 입양인 및 그 후손’ 에 대해선 재외동포로 보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한국어 사용여부가 한국인의 재외동포 인식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우리 국민은 재외동포를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적 시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미나 유럽 선진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재중동포인 조선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CIS지역·고려인 동포에 대한 선호도는 조선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선족과 러시아·CIS·고려인 동포의 한국 내 취업과 관련해선 ‘별로 개의치 않는다’ 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이들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취업이 아닌 다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임 원장은 밝혔다.

‘재외동포의 한국사회 기여도’ 와 ‘대한민국 위상 변화 및 이미지 개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현저히 높게 나왔다. 특히 역사적으로 독립운동 당시 재외동포의 기여도 평가에 있어 긍정적 평가가 현저히 높았다.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2021년 조사)은 ‘한글 및 한국문화 등 한인 정체성’, ‘거주국에서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활동’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왔다. 재외동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2017년 조사)은 중국, 일본, 북미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동포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강화’ 와 이들 지역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 세대의 재외동포에 대한 친근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으며, 재외동포 역시 1세대에서 차세대로 경과할수록 모국과 거주국 간에 이중 정체성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임 원장은 “오늘날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가 중요한 민족자산이라는 인식이 수용돼 있다” 며 “이를 전제로 재외동포의 거주국, 모국, 양국 간의 관계에서 한국인과 재외동포가 호혜와 상생이 가능한 재외동포 정책이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그는 “이번 조사분석을 통해 재외동포 정책 사업을 고도화시키고, 국민과 재외동포가 상호 이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며 “국민정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26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정책의 비전 개발’ 토론회가 열렸다.

귀환동포 지원정책과 이에 대한 국민인식은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귀환동포 지원정책에 관한 국민인식과 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재외동포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해야 하므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제시했다.

윤 교수는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시기적으로 변화해 왔다” 며 “과거에는 재외동포가 우리 민족이고 또 독립운동의 후손으로 보는 온정주의와 함께 해외의 인적 자산이라는 실용적 인식을 갖고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했으나, 지금은 긍정적 인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냉담주의 내지는 혐오와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데, 이는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중국동포에게 전이되는 특징도 있다” 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 국민은 동포에 대해 애증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한편으로는 동포이며 민족자산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동포로 행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고 전했다. 이의 실례로 복수국적 및 병역 문제 등에 대한 재외동포의 이중적 자세를 들었다.

윤 교수는 “사실 많은 국민들은 재외동포에 대해 잘 모르며 관심도 없고 알더라도 정보가 상당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현실” 이라며 “2011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복수국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 국민 비율은 30.8%에 그친다” 고 밝혔다.

2019년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국리서치)에 따르면, 복수국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43.9%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찬성의사는 23.1%에 불과했다. 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는 응답이 33%였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한국은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며 “이런 상황에서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귀환하는 것에 일반 국민의 인식은 우호적이기 어렵다” 고 해석했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근거해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를 하는 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응답자의 87.6%는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73.4%는 이에 반대했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체류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4%는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53.9%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로 인해 의료보험료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의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했다.

대학입시 과정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응답자가 41.8%, 모르는 응답자 58.2%로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해 인지도가 높았으나 찬성 12.1%, 반대 60%일 정도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와 관련해 일반국민은 상당히 강경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불허하며 국내 입국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37.1%가 ‘영구적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 는 강경한 견해를 나타냈고, 22.5%는 50세로, 7.2%는 4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40세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다. 윤 교수는 내국인과 재외동포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재외동포 지원정책으로 ‘재외동포를 배려하고 보호하면서도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 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귀환동포에게 한

국국적을 부여한 이후에는 내 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므로 처음에 한국국적을 부여할 때 일반 외국인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할 것 ▲복수국적 신청 자격요건으로 국내 거주 연수(年數)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 ▲귀환동포의 의료서비스 혜택의 조건과 범위에 대한 보다 엄밀한 실태조사와 합리적 방안 마련 ▲젊은 재외동포의 국내입국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할 방안 고려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에 있어 해외체류 기간과 같은 지원 자격요건 강화 및 대학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보다 엄격한 선발제도 개발 등을 제안했다.

재외동포 정책과 다문화 정책의 관계성

재외동포 정책과 다문화 정책을 뭉뚱그려 정책을 만들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박승지 전 연변과기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외동포 정책과 다문화정책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선족이나 고려인 동포들의 경우 재외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의 언저리에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봐야할 재외동포가 전체 재외동포의 절반에 가까운데 단순히 일회적인 또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 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재일동

포나 조선족 동포에 편견을 갖게 된 데에는 정책적 요인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내국인과 재외동포 간, 또는 재외동포끼리의 제도적 내지는 인식의 차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세계한인평화공동체 개념을 밝혔다. 임 원장은 “이미 한국에 조선족이나 고려인 100만명, 결혼 이주자 26만명, 외국인노동자 50만~60만명이 있다”며 “코리안 또는 민족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들 다문화를 포괄하는 적절한 표현이 ‘한인’이다”며 “넓게는 북한까지 아우른 세계한인평화공동체의 기준 하에서 정책이 나오고 기본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이진영 교수(인하대)가 ‘재외동포 공공외교정책의 현황과 방향’, 오정은 교수(한성대)가 ‘대한민국 복수국적 대상자 확대의 예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또 황상석 정보고한상명예전당 관장, 리단부경대 교수, 강광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제1부 ‘국민과 재외동포’), 조릉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제2부 ‘국적과 외교’)이 사회를 맡았다. [재외동포신문]

LG전자, CES2023에 ‘NFT 신발’ 전시한다

신발관리 솔루션-NFT 신발 결합, 새로운 고객경험 선사
CES 2023에 디지털 가상신발 ‘몬스터 슈즈’ 활용 ‘몬슈클존’ 운영

LG전자(066570)가 차세대 프리미엄 신발관리 솔루션 ‘LG 스타일러 슈케이스·슈케어’와 NFT 신발인 ‘몬스터 슈즈’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경험을 선보인다.

몬스터 슈즈는 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 기술로 만든 디지털 가상신발이다. 고객은 5500가지 고유 디자인의 NFT 신발을 수집하고 LG 씽큐(LG ThinQ) 앱을 통해 실제 신발과 NFT 신발을 함께 관리하고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는 몬스터 슈즈를 인덕대학교 게임&VR 디자인학과와 함께 개발했다.

LG전자는 1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스타일러 슈케이스·슈케어와 NFT 신발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피지컬(phygital) 경험을 선사하는 몬슈클(몬스터슈클럽)존을 운영한다. 피지컬은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피지컬(physical)과 디지털(digital)의 합성어다. 고객은 몬슈클존에서 홀로



▲ 출처= LG전자

그램 및 아토틀을 이용해 스타일러 슈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NFT 신발을 볼 수 있다. AR 기술을 이용해 NFT 신발을 착용해보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다.

NFT 신발은 1월 25일부터 몬슈클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고객은 LG전자에서 개발한 독자 암호 화폐 지갑인 월립토(Wallypto), 카카오 암호 화폐 지갑 클립(Klip)을 통해 획득한 NFT 신발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다.

LG 스타일러 슈케이스·슈케어는 IFA 2022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명품 운동화나 한정판 등의 신발을 더욱 돋보이게 보관하고 즐기는 동시에 최적의 방법으로 관리

해주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LG 스타일러 슈케이스는 나만의 소중한 신발을 최적의 습도와 온도로 제대로 보관하고 예술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는 신개념 보관전시함이다. 내부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받침대는 턴테이블처럼 360도로 회전시킬 수 있어 백화점 부띠끄(boutique)의 진열장처럼 신발을 더 고급스럽고 돋보이게 해준다.

LG전자 H&A사업본부 리빙솔루션사업부장 백승태 부사장은 “차세대 프리미엄 신발관리 솔루션을 갖춘 LG 스타일러 슈케이스·슈케어와 특별한 NFT 신발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ED등의 모든것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가격!



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Jl. Kramat Raya No. 101, RW.1, Paseban,
Kec.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440
Telp: +6221-3104414

Cikarang Warehouse
Jl. Industri Utara 4 Blok SS 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Kec. Cikarang Utara,
Kab. Bekasi 17520

Contact Person
kimsk@ptdaehwa.com
0815-1902-4272
shkim@ptdaehwa.com
0811-174-711

LED TUBE T8 18W

Price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

LED Highbay 100W/150W

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 IP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

LED FLOODLIGHT 100W/150W/200W

Price 150W **Rp. 555.000**
Voltage : AC 180 - 260 V
Waterproof Class : IP66
CCT : 6500K

LED STREETLIGHT 90W/120W

Price 120W **Rp. 1.500.000**
Waterproof Class : IP65
Lumunous Efficiency : 110 lm/W
Power : 120W
CCT : 5700K

LED DOWNLIGHT 6W/12W/18W

Price 12W **Rp. 60.000**
Power : 12W
CCT : 6500K

LED FLAT LIGHT 48W 60X60/120X30

Price **Rp. 400.000**
Size : 60x60 / 120x30
CCT : 6500K

Ex PPN / Jabotabek Price

PEOPLE IN KOFA

코파의 힘 지령 100호를 맞이하여 코파 사람들을 작지만 양면으로 구성했다.
지나간 코파 사람들과 지금의 코파 사람들 모두 한 자리에 하나 된 코파로 항상 기억되고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이다.







코파의 힘 표지디자인 소개

인도네시아 최대 단일 직능 단체인 코파는 8여년간 발행한 코파의 힘 지령 100호를 맞이하여 지난호의 표지디자인을 총 망라해 소개한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 헤스라인 뉴스, 표지에 소개된 회원사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코파의 힘 광고주 소개

GO! Global Kocham Together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최선의 파트너

PT. KOCAM BEDI BANGUNERA

Water Treatment

SPIRAL FILTER SYSTEM

최고의 성능을 가진 나선형 필터를 갖춘 시스템

PT. KOCAM BEDI BANGUNERA

Korean Festival

대한민국 문화의 향연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역사 - 경원 홍보대사

LED등의 모든것 비교할 수 없는 가격!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격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YOUR PARTNER FOR SUCCESS

YOOHAN E&C

신뢰, 품질, 가격

PT. YOOHAN ELECTRIC & CONSTRUCTION

세계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세계한상대회

2019. 10. 13. (일) ~ 15. (일)

2020. 2. 15. 까지

동료여러분! 신고신발을 벗어주세요

신고신발 벗기

Your Best Business Partner!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최선의 파트너

PT. YUSUNG JAYA ABADI

세계를 향해 달려주세요!!!

세계를 향해 달려주세요!!!

PT. YUSUNG JAYA ABADI

소리 항공

생동 ~ S&B/ATAK 관악기 생산 시설

관악기, 플루트, 색소폰 (S&B 국제항공)

공정용 LED 조명등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격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세계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세계한상대회

2019. 10. 13. (일) ~ 15. (일)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격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2016

대한민국 문화의 향연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역사 - 경원 홍보대사

태음갈비

대한민국 대표 갈비

태음갈비

PT. JEONGSUK TECH ABADI

정직한 기술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PT. JEONGSUK TECH ABADI

기술과 열정으로 다가간다!

기술과 열정으로 다가간다!

PT. JEONGSUK TECH ABADI

공정용 LED 조명등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격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세계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세계한상대회

2019. 10. 13. (일) ~ 15. (일)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격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2016

대한민국 문화의 향연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역사 - 경원 홍보대사

PT. YUONG SANJEN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최선의 파트너

PT. YUONG SANJEN

가죽의 세상!

가죽의 세상!

PT. YUONG SANJEN

우리는 창문을 만듭니다!

우리는 창문을 만듭니다!

PT. YUONG SANJEN

POWER 6 (CO2) 나만의 안전공간을 만드세요!

POWER 6 (CO2) 나만의 안전공간을 만드세요!

PT. YUONG SANJEN

세계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세계한상대회

2019. 10. 13. (일) ~ 15. (일)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격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2016

대한민국 문화의 향연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역사 - 경원 홍보대사

PT. YUONG SANJEN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최선의 파트너

PT. YUONG SANJEN

가죽의 세상!

가죽의 세상!

PT. YUONG SANJEN

우리는 창문을 만듭니다!

우리는 창문을 만듭니다!

PT. YUONG SANJEN

POWER 6 (CO2) 나만의 안전공간을 만드세요!

POWER 6 (CO2) 나만의 안전공간을 만드세요!

PT. YUONG SANJEN

세계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세계한상대회

2019. 10. 13. (일) ~ 15. (일)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격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2016

대한민국 문화의 향연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역사 - 경원 홍보대사

PT. YUONG SANJEN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최선의 파트너

PT. YUONG SANJEN

가죽의 세상!

가죽의 세상!

PT. YUONG SANJEN

우리는 창문을 만듭니다!

우리는 창문을 만듭니다!

PT. YUONG SANJEN

POWER 6 (CO2) 나만의 안전공간을 만드세요!

POWER 6 (CO2) 나만의 안전공간을 만드세요!

PT. YUONG SANJEN

세계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세계한상대회

2019. 10. 13. (일) ~ 15. (일)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격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2016

대한민국 문화의 향연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역사 - 경원 홍보대사

PT. YUONG SANJEN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최선의 파트너

PT. YUONG SANJEN

가죽의 세상!

가죽의 세상!

PT. YUONG SANJEN

우리는 창문을 만듭니다!

우리는 창문을 만듭니다!

PT. YUONG SANJEN

POWER 6 (CO2) 나만의 안전공간을 만드세요!

POWER 6 (CO2) 나만의 안전공간을 만드세요!

PT. YUONG SANJEN

세계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세계한상대회

2019. 10. 13. (일) ~ 15. (일)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최고의 품질, 최고의 가격

대한민국 LED 조명 전문

2016

대한민국 문화의 향연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역사 - 경원 홍보대사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수천 명의 외국인은 퇴자들이 과연 인도네시아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제 며칠 후면 알게 됩니다.

정부는 10월 말에 “외국인 관광객을 발리 및 기타 다양한 국내 휴양지에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체류 허가인 세컨드홈 비자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혼란은 기본적으로 당국이 이 나라에 휴가를 오는 외국인들과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려고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발리 공항에서 징과 팽가리를 쳐대며 세컨드홈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려 하지만 정작 발리에 이미 와서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 은퇴자들은 현재 보유한 체류허가가 취소되게 되었고 이를 대체할 새 비자를 신청할 여건은 되지 않아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세컨드홈 비자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부유한 은퇴자들이여, 인도네시아로 오라!



▲ 인도네시아 발리 해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게다가 신청 요건도 여권 및 최근 컬러 사진 등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은행에서 20억 루피아(미화 12만8,000불) 예치 증명을 떼어오라는 것만 빼면 말이죠. 은퇴자용 단기체류허가(KITAS) 또는 장기체류허가(KITAP) 소지자는 이제 의무적으로 세컨드홈 비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해당 자산보유증빙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유한 개인을 휴양지로 불러들이려는 인도네시아의 의도엔 물론 본질적으로 잘못이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전 세계의 부유층을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외국인에게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Malaysia My Second Home)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간의 체류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 중 한 예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한 열대국가 정착을 고려하고, 동시에 그 정도의 자산 보유증빙은 그리 어렵지 않은 외

국인들에게 세컨드홈 비자가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컨드홈 비자는 바로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이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연금생활자들을 모조리 쫓아내려는 의도로 이 정책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머물 방법이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발리, 롬복, 자카르타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

는 많은 외국인 은퇴자들은 이곳에 오래 거주하면서 이곳을 사랑하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당국에서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외국인 은퇴자들이 금전적,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이 나라에서 20년 동안 살고 1년에 1억 루피아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비자가 요구하는 20억 루피아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 돈은 언제든 빠져 다른 곳으로 송금해 버릴 수 있는 은행 예치금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위해 실제로 사용되고 순환되는 돈입니다. 이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12월 24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외국인 연금생활자들의 머리 위엔 불길한 공포감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이미 유일한 고향이 되어버린 인도네시아에 머물게 해 달라며 정부의 호의적 반응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자카르타포스트/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기존 인버터 타입 모델 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FYH 시리즈 :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의 제한적 무역정책은 제조업에 타격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에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무역 정책을 비판했다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15일 발표된 브레튼우드 연구소의 인도네시아 경제전망(IEP) 2022년 12월호에서 제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 NTM)와 서비스 무역 제한, 무역 촉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인도네시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량은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한편,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발생한 탈산업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수출은 2002년 국내 총생산(GDP)의

31%에서 2021년에는 19%로 축소됐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실라 라카토스(Csilla Lakatos)는 인도네시아의 무역 잠재력은 지난 40년간 전혀 없는 세계 무역의 성장에 약간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록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 인하가 상당히 있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비관세 조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관세의 30%에 해당하며 비관세 조치의 30%는 국가 관세 수준의 15배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세계은행은 비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의 총고정자산 형성에 필수적인 자본재와 기계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수출의 거의 3분의 2가 이러한 수출입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라카토스는 이러한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만 재료를 조달하는 기업들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고, 수출 빈도가 높으며, 수출지역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장벽이 정부의 35% 수입 대체 목표를

달성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또한 인도네시아가 수입 승인, 국가 표준에 따른 의무 인증, 입학 제한 및 현지 콘텐츠 요건의 형태 등 “불필요한” 비관세 조치를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라카토스는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포인트(pppt), 수출은 10pppt, 투자는 27pppt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해외 계열사 설립 외 투자 방식이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성장을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진입 및 경쟁 장벽도 제조업을 방해하는 제약사항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정책, 지식재산권정책, 환경보호, 노동권 등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다변화를 위한 무역협정 심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무역협정 심화는 무역상대국의 잠재적 보호무역주의 인식에 대해 인도네시아를 보호하는 ‘보험정책’ 역

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 행사에서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지역 전문가인 사투 까코넨(Satu Kahkonen) 이사는 인도네시아가 무역 정책을 개방한다면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올 것이며 그러한 결정은 인도네시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폐쇄적인 무역 시스템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 제품,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들의 신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까코넨은 “이러한 조치로 무역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까산 무흐리 정책국장은 15일 세계은행의 권고안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수출을 다변화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까산은 비관세 조치가 무역 장벽이 되지만 않는다면, 수입은 제조 성장에 필수적이므로 비관세조치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비관세조치는 옴니버스 일자리 창출법에 의해 대부분 제거되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제조업부문 조니 다르마완 부장은 15일, 현지 부품 의무사용정책이 제조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데 동의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외국 제품 시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기대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비관세 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릴리 안 잉(Lili Yan Ing) 수석고문은 실제로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는 비관세 조치를 분리하기 위해 비관세 조치 개혁이 신중하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무역부 특임직원은 국내 생산품 구매를 강제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을 개선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주도’ BI-Fast 도입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BI-Fast 5단계 참여 BI-Fast, 중앙은행 주도 실시간 금융결제 시스템 기업은행 “필요 금융업무, 연중무휴 가능 전망”



▲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사진=기업은행)

기업은행 인도네시아가 중앙은행(BI)이 주도하는 실시간 금융결제 시스템 BI-Fast를 도입한다. 국내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인도네시아 ICT 기업 린티스 세자페라는 14일 BI-Fast 5단계 참여 은행으로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중국은행 자카르타 지점 △메가 샐리아 은행 △빅토리아 국제 은행 △아체 샐리아 은행 △반톤 은행 △BPD 중앙 칼리만탄 은행 △BPD 북부 수마트라 은행 △BPD 북부 UUS 은행 등 9개 은행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BI-Fast에 참여를 결정한 은행은 총 106개로 늘어났다.

BI-Fast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실시간 금융결제 시스템으로 하루 24시간 내내 즉시 결제 정산과 자

금 이체가 이뤄진다. BI-Fast는 린티스 세자페라의 멀티테넌시 인프라 공유를 통해 구동된다. 멀티테넌시 인프라는 BI-Fast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작동을 지원한다.

BI-Fast는 작년 11월 1단계 참여 은행을 모집한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특히 BI-Fast 1단계 참여 은행 모집 당시 우리은행 인도네시아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베라 아피안티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이사는 “BI-Fast를 통해 연중무휴로 언제든지 필요한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직 BI-Fast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과 비은행 업체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합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 9월 아그리스은행·미트라니아가은행을 합병하면서 인도네시아 법인을 공식 출범했다. 이후 오는 2023년까지 핵심자본을 5조4000억 루피아(약 4700억원)로 확대해 부쿠(BUKU) 3등급 중대형 은행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株式会社 三湖 보일러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Ruko Tal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Fax : 021.5984.666

제17회 대한민국 유망특허기술 대상 '기능성신발' 부문, (주)도도워킹 수상



기능성신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주)도도워킹(조명순 대표이사)은 인체공학 중심의 첨단 메커니즘으로 충격흡수율 -0.45의 터널공법을 개발했다.

기능성 신발을 전세계에 보급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발의 족궁이 도도워킹 기능성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충격 분산과 족궁을 자극해 정상 각도로 자리 잡도록 도움(무릎, 엉덩이, 허리, 목 등으로 전이되는 통증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38년의 연구기간을 거쳐 개발한 터널공법은 인체의 운동역학 원리를 이용, 도도워킹 착용 후 걷는 것만으로 발에 있는 뼈와 근육을 무리없이 스트레칭시켜 굳어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족궁의 형태를 차츰 회복, 발바닥에 미세한 마사지 효과를 불러 일으켜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

다. 또한 도도워킹 기능성 신발에서 있거나 걸을 때, 운동할 때와 같이 몸이 움직일 때 발이 받는 충격을 절대적으로 감소(충격흡수율 -0.45)시킨다. 관련 지식재산권만 무려 170여개다.

때문에 터널공법을 적용한 도도워킹 기능성 신발은 ▲캐주얼이나 구두, 하이힐 뒷굽을 신고 걸으면 걷는 순간 자연스럽게 자세와 허리교정에 도움이 되며 ▲골프화는 비거리와 자세교정에 도움 ▲발가락 운동신발의 경우 발가락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시켜 뇌졸중 예방 및 몸의 중심을 단련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발이 받는 충격을 분산시켜 발을 바르고 건강하게 함은 물론 허리와 척추,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이 적어 활동에 관계되는 전신골격과 근육, 인대 모두를 균형있게 유

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도도워킹이 터널공법의 놀라운 충격흡수율 -0.45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 공인기관인 아택연구소에서 측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구두나 일반신발의 평균 흡수율 16.2에 비해 36배 충격흡수율이 좋다는 결과이다. 때문에 인체 하중으로 인해 우리 발이 받고 있는 충격을 분산해 척추는 물론 관절, 허리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도도워킹은 터널공법과 관련, 미국 공인기관인 아택연구소 테스트 결과는 물론 재활의학으로 권위있는 미국 엔젤로주립대학과 협업을 통해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논문을 8번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도도워킹은 최근 체형 및 보행자세 분석기를 활용해 ▲생체역학적 분석을 통한 근골격 변형 예측 기능 ▲근육 신전 및 단축상태 분석과 리포트 기능 ▲근골격형태 3D Modeling을 통한 근골격 통증부위 예측 기능 ▲근육의 신전 및 단축상태와 3D 상태 분석 기능 ▲검사결과에 따른 자가운동치료 동영상 자동생성 기능 등 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성 신발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

<특허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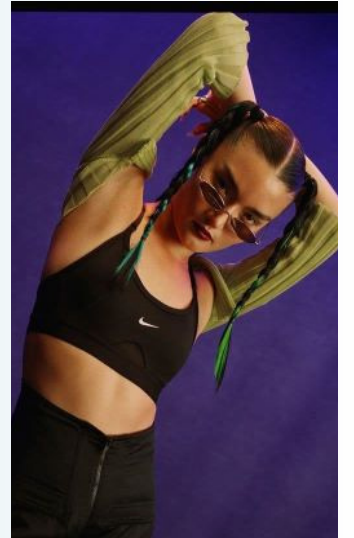
나이키, FY2023 1Q 실적 발표... 누적 재고로 수익 감소

나이키가 2023 회계연도 1분기 매출 성장을 보고했지만, 누적 재고로 인해 수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공급망 붕괴로 중국에서의 실적은 타격을 맞았다.

“2023년을 강력하게 시작했다는 것은 당사가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나이키의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브랜드 장점, 소비자와의 깊은 유대감, 혁신 제품 라이프라인 등의 경쟁우위는 우리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당사는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게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나이키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것” 이라고 존 도나휴(John Donahoe) 회장 겸 CEO는 말했다.

1분기 결과
지난 8월 31일 종료된 2023 회계연도 1분기에, 나이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 증가해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도매 매출도 파트너사들의 재고 공급 수준이 개선되어 1% 성장했다.

중국에서의 매출이 감소해 부분적으로 상쇄되긴 했지만, 북미, EMEA(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및 APLA(아시아태평양 및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두 자릿수 화폐 중립 성장으로 추진되어 이 기간 동안 나이키 브랜드 매출은 총 12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나



이키는 나이키 브랜드의 디지털 사업이 23%나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이키 산하 컨버스의 매출은 아시아 지역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의 두 자릿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해 6억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나이키의 총 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220bp 하락해 44.3%를 기록했는데 이는 운임 및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키는 “북미 지역에서의 마진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이 때문에 과잉 재고 청산 조치를 취했다” 고 밝혔다.

나이키의 2023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은 총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으며 주당이익도 20% 하락해 0.93달러를 기록했다.

출처: WorldFootwear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로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축구유니폼 한벌에 11만8천원... 미얀마 아디다스 공장 노동자 하루일당 2967원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이해 전세계 축구팬들은 한벌에 90~150달러(11만8000~19만6000원) 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폼 상의를 입고 응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런 유니폼과 축구용품 제조하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하루에 3달러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의 푸첸그룹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7800명은 아디다스 축구화를 만들면서 하루에 4800짖(2.27달러)를 받고 있다.

한화로는 2967원 정도다. 노동자들은 월드컵을 앞둔 지난 10월 하루 일당 3.78달러(4941원)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공장 측은 군 병력을 동원에 파업에 동참한 노동



자들을 진압하고 노조 지도부 16명을 포함해 26명을 해고했다.

대만에 있는 푸첸그룹 본사는 해고 사태와 관련 현지 법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아디다스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이러한 해고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는 작업장 기준과 근로자의 자유를 옹호하는 우리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이 적법한지 조사하고 있으며 푸첸그룹에 즉각 해고 노동자들의 복

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월드컵 직전 미얀마 공장에서 잘린 노동자들은 살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한 여성 노동자는 사흘 동안 먹을 것 없이 지내다 동료들이 음식을 조금 가져다 준 덕분에 한숨을 돌렸고, 22세의 다른 노동자는 NYT에 “집세를 내지 못할까 봐,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수 있는 돈을 집으로 보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세계일보]



▲ 잭웨스트 제품 및 SNS

필자가 이상민 대표를 처음 만난 것은 20여년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매년 2회 개최하는 NW Material Show에서였다.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국인이 가기 쉽지 않았는데, 아디다스 미국 본사의 디자이너라며 명함을 받아 들고는 “와 대단한 분이네”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도 자재업체 분들에게 격 없이 친근하게 다가와 대해 줘서 거의 대부분의 신발 업계 분들은 지금까지도 이상민 대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자재업체들이 매년 2번씩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미국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자재와 개

니 한국에서 단 하루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한국의 여러 친한 지인들과 빌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뽀너스라는 간호전문화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 중인데 로고부터 시작해 한 개의 프리미엄 카테고리를 만들어 월드 와이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오, 뽀너스의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대표님의 커리어로 보면 뽀너스가 중소형 브랜드인데도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기준이나 요건이 있

협업을 한다면 좋은 상품에 선발되어 상을 받으면 투자로 이어져서 전 세계로 수출해서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저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몇몇 브랜드들은 많은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Q: 이 대표님이 생각하는 명품이란 어떤 것인가요?

A: 제가 생각하는 명품이란 첫째로, 상품이나 제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스토리를 담은 철학이 있어야 하고, 둘째 디자인이 용도에 맞고 좋아야 하며, 셋째로 품질이 우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명품이 되는 요건이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A/S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디자인 전문가다 보니 앞에서 언급한 요건 중에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생각하



▲ 잭웨스트 로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Q: 이 대표님이 론칭한 브랜드인 JACKWEST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JACKWEST는 미국 서부의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베이스에 라이프스타일 애슬레져 브랜드입니다. 30년 가까이 미국의 메이저 스포츠 슈즈 디자이너로 활동한 저의 노하우와 30년간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마케터로 활약한 에릭 그로프가 브랜드 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인트벤처 브랜드 기업이라 할 수 있지요.

저는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 이상민 대표

트 러버(Absolute Rubber)는 독점 디자인과 소재로 제조된 슬립 테크놀로지의 아웃솔로 현재 북미 안전화 시장의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소재도 친환경과 고급성을 꼼꼼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잭웨스트’는 미국에서 디자인과 마케팅을, 한국에서는 생산을, 원 부자재는 한국과 이태리 등의 고급 소재를 적용합니다. 첫 시즌에는 신발 의류, 모자, 선글라스를 시작으로 레깅스, 가방 등 품목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Q: 끝으로 한국 신발업계의 발전에 대한 조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국도 이제는 신발산업이 사향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배우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으로 거듭나서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져서 미국의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이키 캠퍼스에는 신발 기술자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디자이너, 광고 & 마케팅,

히트신발 제조기, 세계적인 한국계 미국인 디자이너 & JACKWEST 대표 이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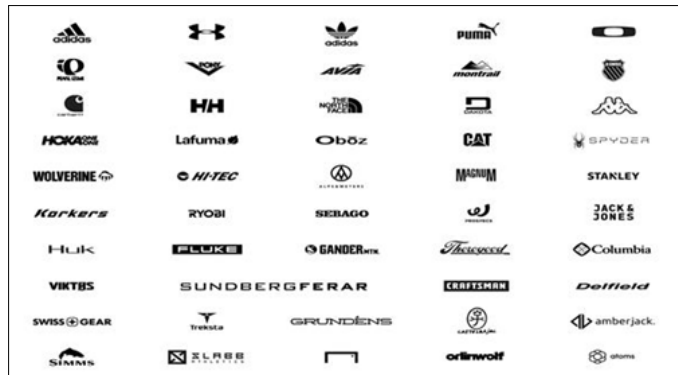
발 담당자들에게 소개를 하면 샘플 적용되어 대량 오더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상민 대표님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와 디자인에 적용시켜와서 한국 업체들에게는 참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프로젝트를 한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한국의 신발 생태계 유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침 이상민 대표가 한국에 2주간 출장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바쁜 일정 불구하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Q: 반갑습니다. 이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며 어떤 프로젝트로 한국에 오셨습니까?

A: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포틀랜드에서 포트로틀켄셀이라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시에 2년 전에 JACKWEST라는 애슬레져 브랜드를 론칭하여 미국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동남아,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진출하기 위해 대형 유통 업체와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몇몇 브랜드의 디자인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부산을 찾았고, 잭웨스트 한국 론칭 건과 미국의 오리건 주정부 포럼과 만찬 자리를 도와주는 일정으로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



▲ 상민 대표가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 한 브랜드

을까요?

A: 종전에는 메이저 브랜드들과 대부분 일해 왔으며 그것이 편하고 익숙하긴 하지만, 스타트업 브랜드와 같은 중소형이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철학이 명확하고 저와 함께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많다고 판단되면 어떤 브랜드들과도 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뽀너스 같은 경우, 대표님이 매우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였으며, 의료인들이 의료인들을 위해 만든 신발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같이 일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과 스토리를 가미하면 대중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꾸준한 매출을 유지해주는 많은 의료인들을 포함한 충성 고객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높게 평가를 했고요. 이러한 브랜드들이 전문가들과

게 되는데, 기아자동차를 예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 차는 여태까지 수십여 년 동안 미국에서 싸구려 차,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차, 가성비는 괜찮은 차로 인식되어 왔는데, 2006년 독일 출신, 폭스바겐-아우디의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하면서 기아자동차 브랜드는 환골탈태하게 되었지요. 이 디자이너 한 사람으로 인해 미국은 물론 유럽,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기아차의 인기는 급상승하게 되었지요. 참으로 디자인의 힘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여기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기아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다른 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디자인만 보완되면 급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였으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맡겨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나 파트너와 프로젝트를

언더아머, 노스페이스 등 20여 개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디자이너로 일해왔으며 북미 시장 최초로 리커버리(애프터 스포츠) 슈즈 카테고리를 개발했으며, 몬트레이의 창업주인 스카터커와 ‘몰라카이’ 플립을 출시하여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하였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에릭 그로프는 아웃도어, 스포츠 분야의 해외 영업과 마케팅의 풍부한 경험으로 ‘잭웨스트’의 스토리텔링부터 리테일을 총괄하고 있는데, 22년 전 아디다스 어드벤처 팀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 오다 잭웨스트를 위해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잭웨스트’는 일상부터 레저, 여행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스타일리스 하면서도 고기능성에 편안한 콘셉트를 지향하며 스트리트 패션부터 스포츠 웨어까지 아우르는 브랜드입니다.

‘잭웨스트’의 차별화 포인트는 30년 가까운 세계적인 브랜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가 가진 기술력과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착화감에 최적화된 커스텀 핏, 초경량, 인체공학적 구조 기술이 그 핵심이지요. 또한 독점적인 기술은 리코폼(RIKOFOAM)으로 ‘나이키’의 루나, 리액 폼 등을 개발한 팀이 다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전천후 액티브 리커버리 품입니다. 게다가 앰슬루

팅, IT/플랫폼, 운동선수, 연구개발자...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인식시키고 전문 인력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학교 또는 학과와 기관 등이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신발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국적의 교포이지만 항상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한국 업체와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년 4번 이상은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력을 총동원하여 준비해 론칭한 잭웨스트를 세계 일류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것이 가장 큰 계획입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뽀너스의 사례와 같이 마인드가 바르고 건전한, 그리고 잠재력이 있고 성격이 맞는 한국의 스타트업 브랜드나 기업 또는 인기 있는 케이팝 가수들과도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필자: 귀한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 출장 업무 잘 보시고 안전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항상 건강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민 대표: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길모 (지엠글로벌 대표) 신발 전문 컨설턴트

최근 7년간 인도네시아 임금인상 추이

PROVINCE	REGENCY/CITY	NAME	2015	INCREASE (%)	2016	INCREASE (%)	2017	INCREASE (%)
DKI Jakarta		JAKARTA	2,693,764	14,5	3,100,000	8,25	3,355,750	8,71
Banten	Regency	TANGERANG	2,710,000	11,5	3,021,650	8,24	3,270,936	8,02
		PANDEGLANG	1,737,000	15,1	1,999,981	8,24	2,164,979	8,02
		LEBAK	1,728,000	13,7	1,965,000	8,24	2,127,112	8,02
		SERANG	2,700,000	11,5	3,010,500	8,24	3,258,866	8,01
	City	TANGERANG	2,730,000	11,5	3,043,950	8,24	3,295,075	8,01
		SOUTH TANGERANG	2,710,000	11,5	3,021,650	8,24	3,270,936	8,01
		SERANG	2,375,000	11,5	2,648,125	8,24	2,866,595	8,01
		CILEGON	2,700,050	11,5	3,078,057	8,25	3,331,997	8,01
West Java	Regency	BOGOR	2,590,000	14	2,960,325	8,24	3,204,551	8,01
	City	BOGOR	2,658,155	13,7	3,022,765	8,24	3,272,143	8,01
	Regency	BEKASI	2,840,000	15	3,261,375	8,24	3,530,438	8,01
	City	BEKASI	2,954,031	11	3,327,600	8,23	3,601,650	8,01
	Regency	BANDUNG BARAT	2,004,637	13,7	2,280,175	8,24	2,468,289	8,01
		BANDUNG	1,735,473	31	2,275,715	8,24	2,463,461	8,01
	City	BANDUNG	2,310,000	13,7	2,626,940	8,24	2,843,662	8,01
	Regency	GARUT	1.250.000	13,7	1,421,625	8,24	1,538,909	8,01
	Regency	SUKABUMI	1,940,000	13,1	2,195,435	8,24	2,376,558	8,01
	City	SUKABUMI	1,572,000	16	1,834,175	8,24	1,985,494	8,01
	Regency	SUBANG	1,900,000	13	2,149,720	8,25	2,327,072	8,01
		KARAWANG	2,957,450	12,6	3,330,505	8,25	3,605,272	8,01
PURWAKARTA		2,600,000	12,6	2,927,990	8,24	3,169,549	8,01	
Central Java	City	SEMARANG	1,685,000	13	1,909,000	8,38	2,125,000	8,15
	Regency	SEMARANG	1,419,000	13,4	1,610,000	11,3	1,745,000	8,01
	City	SALATIGA	1,287,000	12,7	1,450,953	10	1,596,844	8,7
	Regency	JEPARA	1,150,000	17,3	1,350,000	18,5	1,600,000	8,7
	Regency	KUDUS	1.380.000	16,5	1.608.200	8.25	1,740,900	8,7
East Java	Regency	GRESIK	2,707,500	12	3,042,500	8,25	3,293.510	8,01
		MOJOKERTO	2,695,000	12,4	3,030,000	8,25	3,279,980	8,01
		PASURUAN	2,700,000	12,5	3,037,500	8,25	3,288,100	8,01
	City	MOJOKERTO	1,437,500	11,5	1,603,000	8,25	1,735,250	8,01
		PASURUAN	1,575,000	11,5	1,757,000	7	1,879,220	9,1
		SURABAYA	2,500,000	21,8	3,045,000	8,25	3,296,220	8,01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점점 높아져가는 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인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우리 재인도네시아 한국 신발기업의 경쟁력 또한 악화되고있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현실속에서 지난 7년의 임금인상 추이를 점검 해보고 슬기로운 경영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2018	INCREASE (%)	2019	INCREASE (%)	2020	INCREASE (%)	2021	INCREASE (%)	2022	INCREASE (%)	2023
3,648,035	8.03	3,940,973	8.51	4,267,349	3.5	4,416,186	4.86	4,641,854	5.3	4,901,798
3,555,834	8.03	3,841,368	8.51	4,168,268	1.5	4,230,792	-	4,230,792	6.5	4,527,688
2,353,549	8.03	2,542,539	8.51	2,758,909	1.5	2,800,292	-	2,800,292	6.04	2,980,351
2,312,384	8.03	2,498,068	8.51	2,710,654	1.5	2,751,313	0.80	2,773,590	5.81	2,944,665
3,542,713	8.03	3,827,193	8.51	4,152,887	2.3	4,215,180	-	4,215,180	5.38	4,492,961
3,582,076	8.03	3,869,717	8.51	4,119,029	3.4	4,262,015	0.55	4,285,798	6.52	4,584,519
3,555,834	8.03	3,841,368	8.51	4,168,268	1.5	4,230,792	1.15	4,280,214	5.96	4,551,451
3,116,275	8.03	3,366,512	8.51	3,773,940	1.5	3,830,549	0.52	3,850,526	5.87	4,090,799
3,622,214	8.03	3,913,078	8.51	4,246,081	1.5	4,309,772	2.72	4,430,254	4.87	4,657,222
3,483,667	8.03	3,763,405	8.51	4,083,670	3.2	4,217,206	-	4,217,206	6.7	4,520,212
3,557,146	8.03	3,842,785	8.51	4,169,806	-	4,169,806	3.71	4,330,249	6.66	4,639,429
3,837,939	8.03	4,146,126	8.51	4,498,961	6.1	4,791,843	-	4,791,843	6.73	5,137,575
3,915,353	8.03	4,229,756	8.51	4,589,708	4.0	4,782,935	0.71	4,816,912	6.62	5,158,248
2,683,277	8.03	2,898,744	8.51	3,145,427	3.2	3,248,283	0.75	3,272,668	5.98	3,480,795
2,678,028	8.03	2,893,074	8.51	3,139,275	3.2	3,241,929	-	3,241,929	7.17	3,492,465
3,091,345	8.03	3,339,580	8.51	3,623,778	3.2	3,742,276	0.86	3,774,860	6.76	4,048,462
1,672,947	8.03	1,807,285	8.51	1,961,085	0.0	1,961,085	0.72	1,975,220	6.71	2,117,318
2,583,556	8.03	2,791,016	8.51	3,028,531	3.1	3,125,444	-	3,125,444	6.76	3,351,883
2,158,430	8.03	2,331,752	8.51	2,530,182	0.0	2,530,182	1.26	2,562,434	6.75	2,747,774
2,529,759	8.03	2,732,899	8.51	2,965,468	3.2	3,064,218	-	3,064,218	6.40	3,273,810
3,919,291	8.03	4,234,010	8.51	4,594,324	4.3	4,798,312	-	4,798,312	7.30	5,176,179
3,445,616	8.03	3,722,299	8.51	4,039,067	3.2	4,173,568	-	4,173,568	6.52	4,464,675
2,310,087	8.15	2,498,587	8.51	2,715,000	3.4	2,810,025	0.88	2,835,021	7.48	3,064,348
1,900,000	8.15	2,055,000	8.51	2,229,880	3.2	2,302,797	0.37	2,311,254	6.84	2,480,988
1,735,930	8	1,875,325	8.51	2,034,915	3.2	2,101,457	1.27	2,128,523	6.81	2,284,179
1,739,360	8	1,879,031	8.51	2,040,000	3.2	2,107,000	0.07	2,108,403	7.23	2,272,626
1,892,500	8	2,044,467	8.51	2,218,451	3.2	2,290,995	0.09	2,293,058	6.02	2,439,813
3,580,370	8.03	3,867,874	8.51	4,197,030	2.3	4,297,030	1.72	4,372,030	3.32	4,522,030
3,565,660	8.03	3,851,983	8.51	4,179,787	2.3	4,279,787	1.79	4,357,787	3.26	4,504,787
3,574,486	8.03	3,861,518	8.51	4,190,133	2.3	4,290,133	1.72	4,365,133	3.32	4,515,133
1,886,387	20	2,263,665	8.51	2,456,302	1.0	2,481,302	1.16	2,510,452	7.38	2,710,452
2,067,612	24.5	2,575,616	8.51	2,794,801	0.9	2,819,801	0.67	2,838,837	6.58	3,038,837
3,583,312	8.03	3,871,052	8.51	4,200,479	2.3	4,300,479	1.71	4,375,479	3.31	4,525,479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SUNTECH

Making AUTOMATION FACTORY

with **SUNTECH's** Smart technology!

Business Instruction

01. A/S & Spare parts

- One-stop Service 체제 가동
- 각종 재봉기 및 자수기 부품 판매

02. Sewing Machine

- 신발 현장에 최적화된 재봉기 판매
- 현장 합작 특수 재봉기 개발 및 판매

03. Embroidery Machine

- 현장에 맞는 다양한 HEAD 자수기 개발 및 판매
- 신개발 원단에 최적화된 특수 자수기 및 옵션 장치 개발 및 판매



04. Special Machine

- 생산 현장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요청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 생산 현장의 슬립화를 위한 다공정 가능 특수 기계 개발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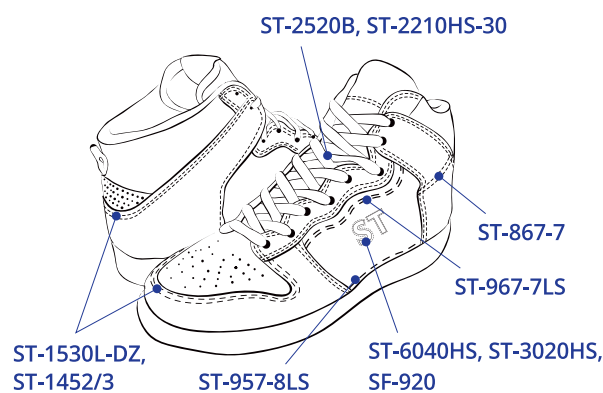
05. Automation Device

- 다양한 Automation Device 개발로 생산 효율성 증대

06. IoT System & Device

- IoT DEVICE 및 SYSTEM 개발로 생산 현장의 빅데이터 생성 및 저장. OEE, KPI 등 각종 데이터 산출 가능한 시스템 개발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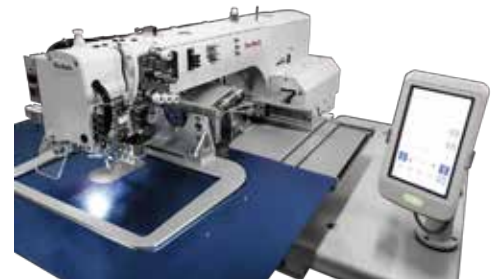
APPLICATIONS



NEW PRODUCTS



2-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2, ST-6040HS-C2



3-칼라 컴퓨터 패턴 재봉기
ST-3020HS-C3



자동 땀폭 조절이 가능한 롤러 포스트 재봉기
ST-666H, ST-777H



신발 생산 전용 자수기
SFT-10616



CIKAKANG BRANCH

Ruko Podium Blok A No. 1 & 2 Jl. Mataram,
Lippo Cikarang Kel. Cibatu, Kec.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2210-4936~7
H.P +62-811-911-2248 +62-811-179-2248

JEPARA BRANCH

Jl. Jepara-Kudus, Desa Rengging
RT.006 RW.001 Pecangaan, Jepara
TEL +62-291-7520-288
+62-811-911-2284 (Local)